

## 市, 공직기강 확립 非노출 감찰 실시

대구시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20일 까지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비(非)노출 밀착감찰 활동을 벌인다.

설 연휴를 전후해 자칫 들뜨기 쉬운 사회 분위기와 정기인사를 앞두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이번 감찰에는 5개반(30명)의 감찰반이 투입된다.

감찰 단속반은 이 기간 동안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거나 뚜렷한 사유 없이 자리를 비우는 등 복무규정 위반과 금품 및 향응수수, 각종 위법행위 단속 소홀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를 집중 감찰한다.

또 인·허가 처리 등 취약 분야 생활민원 처리 실태와 청사방호 및 비상근무실태 등도 함께 감독할 계획이다.

특히 이번 감찰에서는 정기인사와 맞물려 청탁, 향응제공·뇌물수수 행위, 직무유기, 부당한 지시나 압력 행사 등 각종 비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비 노출 밀착감찰을 강화키로 했다.

시는 감찰결과에 따라 작고 가벼운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주의를 주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물론 감독자도 연대해 엄중분책 할 방침이다.

최태욱기자 [choi@idaegu.co.kr](mailto:choi@idaegu.co.kr)